

2021년 4월 4일. April 4, 2021

금문교회 부활절 새벽예배 GGPC Easter Early Morning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놀라지 말라! Do Not Be Alarmed!

마가복음 Mark 16:1-8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When the Sabbath was past,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and anoint him.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sun had risen, they went to the tomb.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And they were saying to one another,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4.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And looking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back—it was very large.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And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sitting on the right side, dressed in a white robe, and they were alarmed.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And he said to them, “Do not be alarmed. You seek Jesus of Nazareth,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는지라.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And they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for trembling and astonishment had seized them. And they said nothing to anyone. For they were afraid.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Now when he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from whom he had cast out seven demons.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She went ou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s they mourned and wept.

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But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live and had been seen by her, they would not believe it.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After these things, he appeared in another form to two of them, as they were walking into the country.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And they went back and told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He lives, He lives, Salvation to impart!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He lives within my heart!  
찬송가 162, 후렴

사람의 모든 두려움은 결국 “죽음공포”입니다. 죽음공포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활신앙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요한복음 John 11:25-26

사람이 잔혹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강한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잔인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여유”가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The one who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요한일서 1 John 4:18

완전한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버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요한복음 John 15:9

두려움을 쫓아내는 참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5:14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And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sitting on the right side, dressed in a white robe, and they were alarmed.

놀라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 언제나 놀라는 법입니다.

정성은 있었으나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부닥친 것은 부활현실입니다. 부활현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놀랐”습니까?

놀람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들은 “놀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And he said to them, “Do not be alarmed. You seek Jesus of Nazareth,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안심”하기를 원하십니다. SPR! 그렇습니다. 창조도 출애굽도 그 결국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자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는지라.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천사는 새로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나게” 해 준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And they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for trembling and astonishment had seized them. And they said nothing to anyone. For they were afraid.

그들은 아직 몹시 놀랐습니다. 아직 부활신앙이 들어오지 못한 까닭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랍오니!”

부활의 새벽입니다. 새벽에 두려움을 깨치고 일어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Awake, my soul! Awake harp and lyre! I will awaken the dawn!

시편 Psalm 57:7-8

다윗은 부활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소성하였습니다. 사무엘하에서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로 땅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써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활신앙 아니면 결코 지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시편 Psalm 23:4

바울은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제 나는 성도들께 “부활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또 다른 공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믿음이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살롬입니다. 부활의 때,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아멘.

Hallelujah! Jesus is risen!

It is times of suffering. It is dark. Racial discrimination is another

threatening to Coronavirus. It is sure, however, the resurrection faith removes darkness. We believe Jesus Christ,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we walk, following the Lord who promised us the eternal life. The perfect love that Jesus showed us in the Cross drives the fear out. Do not fear! What Jesus gave us is shalom. In the Easter times, may God bless you! Amen.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 짐을 벗어 던지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써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후파교회는 후파의 산 십자가 언덕에서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후파 골짜기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거룩한 소망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와 늘 함께하옵소서. 두려움 없고, 공포 없는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